

보 도 자 료		 <div>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div>
배포 일자	2024.4.23.(화) 총 10매 (본문 2, 붙임 8)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명화 실장 (051-797-4571, jmh@kmi.re.kr)- 이정필 부연구위원 (051-797-4905, feel61@kmi.re.kr)- 홍혜수 전문연구원 (051-797-4587, doubleh@kmi.re.kr)	
배포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051-797-4381, 4396)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10th KORAFF, Korea-Africa Fisheries Forum
KMI, 「제10회 한-아프리카 수산 포럼」 성공적 개최
- 알제리 수산협력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4월 21일~22일 양일간 알제리 알제에서 한-아프리카 수산포럼(KORAFF)을 개최하였다. 알제리 수산부, 수산연구소(CNRDPA),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근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사무소(RNE), 주알제리대한민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 현대아산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KORAFF는 한국과 알제리 간 수산분야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한국-알제리 수산협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3개 세션 16개의 발표로 구성된 KORAFF는 한국-알제리 간 수산협력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진단하며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올해로 제10회째를 맞이하는 KORAFF가 알제리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는데 알제리 수산부 등 정부와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KORAFF를 계기로 KMI-알제리 수산부 장관 면담도 성사되었다. 아흐메드 바다니(Ahmed BADANI) 알제리 수산부 장관은 알제리 새우양식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의 초청연수 사업 효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 알제리의 수산분야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알제리 수산업 발전을 위

한 종합 계획 수립에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며 KMI와 CNRD PA 간 MOU 체결을 제안하였다.

알제리 수산부는 이번 KORAFF를 통해 한-알제리 간의 수산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래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와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하였다. 기존 사하라 사막 새우 양식 사업 이외에도 ‘알제리 수산양식 2030 전략’ 실현을 위해서는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 발전 과제가 남아있어 한국-알제리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가 포럼 정례화와 공동연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6월에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한국을 방문하여 KMI와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KMI 조정희 부원장은 “한-아프리카 수산포럼이 한국과 알제리, 나아가 아프리카 지역의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하며 이번 포럼이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임을 밝혔다.

지난해 개최된 제9회 한-탄자니아 수산포럼 이후 연이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 파트너들과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국과 알제리의 수산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 강화를 기반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의 협력사업을 확장하고 수산물 무역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 보도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취재지원 필요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정명화 실장(051-797-4571) <jmh@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주제발표 주요 내용

<붙임2> 제10회 한-아프리카 수산 포럼 포스터

<붙임3> 제10회 한-아프리카 수산 포럼 사진

<붙임1> 주제발표 주요 내용

2024 KORAFF 1st day(2024.04.21.)

1. 알제리 수산협력의 과거와 교훈

발표주제	알제리에서의 지속 가능한 수산 및 양식 확대
연사자	Ahmed M. Al-Mazrouai/FAO 근동·북아프리카 수석 수산 및 양식 사무국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발표에서는 알제리의 수산 및 양식업 발전을 위한 현재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알제리의 수산 및 양식업이 식량 안보와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알제리의 양식업의 높은 연간 성장률(12.49%)과 발전상황, 알제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 밖에도 글로벌 수출, 수산물의 영양 및 환경 이점,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 등을 언급하며, 수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생산물들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양식 생산은 더욱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FAO는 수산물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포괄적이며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산, 개선된 영양, 환경 보호 및 더 나은 삶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발표주제	한-아프리카 수산 포럼의 역사와 미래
연사자	정명화/KMI 수산정책실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발표에서는 KMI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한-아프리카 수산 포럼의 시작과 설립 배경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KMI가 추진 중인 한-태평양 수산 포럼, 한-라틴아메리카 수산 포럼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으며, 그간 추진되었던 9번의 한-아프리카 수산 포럼을 통해 도출된 주요 성과와 업적에 대해 소개하였다. 나아가 이번 알제리 알제에서 개최되는 제10회 한-아프리카 수산 포럼의 역할과 협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한-아프리카 수산 포럼의 추진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발표주제	한국의 수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사자	홍혜수/KMI 수산정책실 전문연구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발표에서는 한국의 국제 수산 협력 노력과 다양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수산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국제 개발 협력의 일환으로,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 정부 차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 수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ODA사업의 목표가 연안 개발도상국의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 해양생태계 보호 등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양자간 협력 사항에 대한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수산역량 강화 사업, 장학 프로그램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발표주제	2024 알제리 수산업 및 양식업
연사자	HABBACHE Hamza/알제리 수산부 양식개발 국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발표에서는 2024년 알제리 수산 및 양식 산업의 현재 상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재 알제리 양식업은 천혜양식과 담수 양식으로 나뉘며, 전체 연간 생산량은 약 7,000톤으로, 이 중 4,800톤이 천혜 양식에서 생산된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양식업 외에도 어업 부문에서는 연간 약 120,000톤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 6,100여개의 어선세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어업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행 중이며, 어항 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업 및 양식 제품의 가공 및 포장을 위한 새로운 시설과 기술의 도입이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어업 및 양식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의 발전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발표주제	2030 수산업과 양식업 전략
연사자	HAROUADI Farid/알제리 수산부 감사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발표에서는 알제리의 2030년까지의 수산 및 양식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부적으로 알제리는 2030년까지 해양 및 내륙 양식 산업을 통해 연간 40,000톤의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6개의 양식 프로젝트가 식별되었고, 이 중 대부분이 향후 5년 내 최적 생산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대규모 어업 개발을 통해 국내 시장에 수산물을 공급하고 새로운 어업 지역을 개발하여 2024/2025년에는 40,000톤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식 및 어업 산업의 국내 공급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 발표하였다.

2024 KORAFF 2nd day(2024.04.22)

2. 한-알제리 수산협력의 현재 그리고 미래

발표주제	알제리의 수산업과 양식업 분야 국제 협력
연사자	Guenatri Fouad Advisor/Ministry of Fisheries Production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발표에서는 국제 협력이 어떻게 알제리의 어업 및 양식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제 협력의 필요성 강조(양자, 다자, 경제파트너십)하고 다자의 경우 UN체계 하에 있는 주요 기관들로 FAO, FCN(지중해 어업위원회), EU 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국제 협력이 기술 혁신과 생산 과정의 통제를 통해 어업 및 양식업의 현대화와 지속적인 개발을 촉진하며, 다양한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어업 관리와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에 대한 정보 교환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및 경제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강조되며, FAO와의 주요 협력 프로젝트들에 대한 소개하면서 특히, 알제리는 다양한 양식 및 어업 관련 교육과 기술 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표주제	한국국제협력단의 알제리-한국 협력 성과: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연사자	LAABABSA Lelia/CNRDPA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제리와 한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내용에 대한 발표 진행, 주로 CNRDPA(Centre National de Recherche et de Développement de la Pêche et de l'Aquaculture)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 간의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알제리와 한국은 양식 기술, 어업 장비, 생태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과학 기술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CNRDPA는 KOICA의 지원으로 여러 실험 양식장에서 새우 양식을 시작했으며, 특히 Skikda와 Hassi ben Abdellah 지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기술 지원을 제공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알제리 연구진과 공무원들이 한국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다는 점과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소개 알제리의 수산업과 양식업 분야에서의 기술 및 인프라 개선 새우 양식 기술의 도입 및 실험 양식의 성공 수산 관련 장비와 실험실 기기의 현대화 해양 생태계 관리를 위한 과학적 방법론의 강화 국제 협력은 알제리의 수산업과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며, 양국 간의 기술 및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

발표주제	한국의 양식어업 -개발경험과 미래-
연사자	최순/KMI 수산정책실 전문연구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발표에서는 한국의 양식 산업 발전 경험과 미래 전망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양식업은 대표적으로 김, 전복, 굴, 넙치, 새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김은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한국의 양식 생산량은 약 2.27백만 톤에 달하며, 1970년대의 20배 이상 증가. 주요 생산품목 중 하나인 넙치는 내수용 양식 탱크와 해상 부유 그물에서 주로 양식되며, 한국의 해산물 소비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강조하였다. 양식 기술의 발전은,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굴과 다른 종의 종자 생산 기술이 개발되었고, 1980년대에는 패류,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어류 양식 기술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언급. 최근에는 게놈 분석 기술이 양식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왔음을 언급했다. 또한,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양식 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 양식업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해산물 생산 및 소비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발표주제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업과 양식업 ODA 프로젝트
연사자	김수경/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발표에서는 한국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 양식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여러 국가에서 수행되었으며, 양식 기술 전수, 생산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양식 방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튀니지에서는 굴 양식 기술을 전수, 알제리에서는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 새우 양

	<p>식 연구 센터를 개발, 미얀마에서 내륙 양식 산업의 기반을 마련, 베트남에서의 북부 지역의 갯벌 양식종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구축, 인도네시아에서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양식 생산성을 향상, 콜롬비아와 바누아투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산 및 양식 기술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 대해서 강조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지막으로 수행된 프로젝트들이 각 지역의 양식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증진과 지역 경제 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ODA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

발표주제	내수면 새우 양식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향
연사자	장인권/ KOICA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발표에서는 한국과 알제리 간의 내륙 새우 양식 개발에 관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세 가지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되어 알제리에서 <i>Penaeus japonicus</i> (일본산 새우)의 양식 기술 개발, 두 번째 프로젝트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Ouargla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 저염분 지하수를 사용하여 <i>Litopenaeus vannamei</i>(바나메이 새우) 양식 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세 번째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으로, 새우 사료 공장 설립 및 용량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알제리의 새우 양식 산업 발전과 기술 전수를 위한 한국 정부와 기술자들의 노력과, 새우 양식 기술, 전문 인력 양성, 양식 인프라가 축적되어 알제리 내륙에서의 새우 양식 잠재력이 매우 유망하다고 평가하면서 사막에서 새우 양식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발표주제	알제리 새우양식의 도전과 성과
연사자	장봉희/ KOICA 알제리 센터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발표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한 사하라 새우 양식 프로젝트의 성과와 도전 과제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사하라 새우 양식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세 가지 주요 성공 요소를 제공하여 완료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들이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프로젝트가 세계 무역 상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변화(예: COVID-19 팬데믹, 사료 수입의 변동 등)에 따라 프로젝트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관리, 조달 및 연구 자금 배분에 있어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미래를 향한 계획으로는 글로벌 무역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CNRDPA와의 연구 계획에 대한 추가 협력을 통해 상업화를 위한 민간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발표주제	한국-해양 경제 이니셔티브
연사자	이석진 사무관/ 해수부 국제협력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발표에서는 한국 해양수산분야 정책, 파트너 국가와의 해양수산 ODA소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에서는 한국의 해양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전략과 목표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 해양 경제의 가치에 있어 상당 부분을 해양과 연관된 산업에서 창출하며, 해양 관련 일자리는 약 132만 개, 3조달러의 가치 창출 동력.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선박 소유 국가이며, 어업 생산에서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바다 수온 및 해수면 상승, 해양 생태계 변화, 어획량 감소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해양 전략(기후 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어업, 해양 환경 보전, 인재 양성 등)의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였다. • 국제 협력 및 인재 양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적인 해양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발표주제	한국 어업 기술 및 연구 개발 현황
연사자	조삼광/국립수산물과학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에서는 한국의 어업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 상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 국립수산물과학원(NIFS) 소개 영상을 시연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스마트 어업 안전 장비 개발의 소개, 어업 정책 지원 연구(무선 송수신기와 유압 제어 시스템 개발 관련), 부수 어획 감소 연구(부수 어획 감소 장치(BRD)), 친환경 어구 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 • 아울러 이러한 연구들이 한국의 어업 기술의 혁신을 추구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접근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표주제	GSA 개발 과정 구조화: 내용, 구조 및 앞으로의 경로
연사자	오광석/FAO 국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에서는 지속 가능한 양식 가이드라인(GSA)의 개발 과정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2017년 FAO의 제9회 COFI:AQ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양식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권고가 처음 제안되면서 GSA 개발의 시작되었음을 언급하였다. • 이후 여러 차례의 전문가 협의와 각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GSA 개발을 위한 방법론과 사례 연구 선정, 교훈 도출 방법이 마련되었고, 문서화와 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발표하였다. • GSA의 주요 구성 요소가 “비전 및 목표 - 거버넌스 및 계획 - 지속 가능한 자원 및 생태계 관리 - 사회적 책임 및 공정한 노동 및 성평등 - 구현 및 모니터링” 단계별 절차 상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GSA를 COFI 다음 회의에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GSA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행을 위한 자금 조달 소스를 모색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이 양식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발표주제	무역과 가치 -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
연사자	M. Abderrahmane Hentour/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에서는 알제리의 어업 및 양식 산업에서의 가치 사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무역 및 상업적 기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산물의 수출입, 무역 협정, 그리고 해당 산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알제리 수산물 가치 사슬의 기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자 기회가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틸라피아와 유럽 뱀장어와 같은 특정 양식 제품의 가공과 시장화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수출입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 아울러 다양한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해 알제리 어업 제품의 국제 시장 접근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수산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발표주제	스마트 수산: 수산 장비 산업 전략과 전망
연사자	엄선희/KMI 신성장동력연구실 부연구위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통한 수산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과 기술 방향을 제공하며,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 수산 및 수산 장비 산업의 개요 부분에서는 수산 산업은 어선, 어구, 양식시설, 낚시업 등을 포함하며, 이와 관련된 장비 산업은 다양한 재료, 화학 제품, 전자기기, 기계 장비 등을 생산하며, 최근 한국의 노동력 감소, 기후 변화 대응, 안전한 수산 관리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ICT, IoT, 빅 데이터, 클라우드, AI 기술을 적용하여 수산 생산의 자동화, 지능화, 연결성을 강화하여 스마트 수산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 또한 글로벌 동향을 언급하면서 미국, EU,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는 전자 감시 시스템, 디지털 수산 관리 시스템 개발 및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한국의 정책방향이 수산 장비 산업에 대한 스마트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스마트 수산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관리,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마지막으로 기술 및 전략 방향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수산 안전 시스템 구축, 탄소 중립적 에너지 제어 수산 기술 개발, 스마트 양식 장비 개발 및 데이터 표준화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알제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The 10th Korea-Africa Fisheries Forum

10^e Edition du Forum Corée-Afrique de la Pêche et des
Ressources Halieutiques

April 21-22, 2024 **Algiers, Algeria**

Co-host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Supporters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lgeria

KOICA



<붙임3> 제10회 한-아프리카 수산 포럼 사진



